

연결의 언어로서 우리말

원병목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사람들은 연결되고 싶어 한다.’

지식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연결되고 싶어 한다. 전 세계 20억 이상의 이용자가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는 매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그들의 철학을 ‘연결’에서 ‘친밀’로 수정했다. ‘세상을 연결’하겠다는 기준의 철학을 넘어 ‘세상을 더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사람들은 더 친밀하게 연결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을 더 가깝게’

페이스북의 성공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하려는 그들의 철학 때문만이 아니다. 연결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본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 가깝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는 ‘언어’다. 말과 글을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된다.

1. 연결의 의미

국립국어원에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보면, ‘연결(連結)’은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이라 한다. 영어로는 ‘connection’ 또는 ‘link’와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어짐 그리고 관계 맺음이 연결이다. 이어지고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알아야 하고 교감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이으려면 서로 ‘생각’이 ‘통’해야 한다. 말이든 몸짓이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을 ‘소통(疏通)’이라 한다. 말과 글은 가장 보편적인 소통 방식이다. 우리는 ‘생각이 통해야’ 연결될 수 있다.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에서 연결의 구조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복잡계 과학’이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연결이 생겨나기 때문에 복잡한 물질과 사회를 이해하려면 연결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공학에서 연결은 좀 더 특별하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연결을 조절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잘 늘어나고 질긴 특별한 재료를 만들기도 한다.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거나 반응과 반응을 연결하여 사물이나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한다. 실생활에서 연결은 꽤 쓸모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도 물질과 비슷하다. 물질세계의 관계 맺음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쳐 내는 ‘인력(引力)’과 ‘척력(斥力)’의 합으로 표현한다. 사람 사이에도 인력과 척력이 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당기거나 밀치는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살아 있는 생명체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은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다. 물질과 달리 사람의 연결은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남(男)’과 ‘여(女)’가 서로 뭉쳐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노(老)’와 ‘소(少)’가 서로

의 생각을 좁히지 못해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렵지만 온라인에서는 물리적 제약이 없다.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뭉치거나 떨어져 나간다. 온라인에서 연결은 넓고 신속하고 역동적이다.

온라인에서 우리를 연결하는 소통의 수단이 ‘우리말’이다.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쉽게 하나가 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우리말은 온라인 연결의 핵심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지난해 겨울 촛불 집회가 매주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서로의 참여를 묻고 의견을 나누며 경험을 공유했다. 온라인을 통해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참여는 강하게 이어져 있다.

2. 우리말의 진화

2014년 『표준국어대사전』에는 511,160개 우리말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어휘는 몇천 개 정도다. 국립국어원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자주 쓰는 우리말 어휘는 고작 6,000개 정도라고 한다. 연결의 언어로서 우리말은 온라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온라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말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하다.

귀여운 사람을 뜻하는 ‘귀요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태어난 이 말은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매일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신조어는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좀 더 다양할 수 있다. 필자가 발견한 연결의 언어로서 우리말의 중요한 특징을 ‘단편화(斷編化), 공진화(共進化), 다변화(多邊化), 국제화

(國際化), 대중화(大衆化)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단편화(斷編化)

온라인의 글은 대부분 조각나 있다. 온라인 환경은 온전한 긴 글을 수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온라인의 글은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속성 때문에 짧고 단편적이고 명료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조각난 우리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소리대로 읽어 본래 어휘의 본질을 감추거나 변형시키는 경우도 많다.

조각난 우리말의 사례로서 우리말의 첫소리만 따서 만들어진 ‘초성체(初聲體)’가 있다. 초성체는 우리말 자모의 초성만을 따서 만들며 온라인에 자주 등장한다. 이를테면 ‘사랑해’를 ‘ㅅㅏㄹ ㅎ’로 쓰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ㅋㅋ’와 ‘ㅎㅎ’ 같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에서 벌달하여 점차 어떤 단어를 암시적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나타내는 표현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꽤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각난 우리말을 ‘비밀스럽게’ 맞추며 소통한다. 조각난 말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 ‘또래’ 문화를 형성한다. 기성세대를 거부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말의 변형을 좀 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문장이 조각난 경우도 흔하다. 짧은 어구가 뜻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어가 없거나 서술어가 없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이렇게 어구나 단문에 익숙하다 보면 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등장하는 긴 예문은 온라인 소통에서 나타나는 우리말 단편화의 반대 추세라 할 수 있다.

2.2. 공진화(共進化)

온라인에서 연결이 많은 사람을 ‘마당발’이라 한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당발’ 중에는 여론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도 있고 특정 분야로 유명 인사가 된 ‘온라인 스타’도 있다. 일찍이 온라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곳임을 직감한 언론과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뉴스를 전파하는 최적의 매체로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마당발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대중의 주목을 끄는 온라인의 마당발이 다양하다. 과학자, 정치가, 언론인, 여행가, 시인, 작곡가, 영화인, 미술가, 사진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연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 우리말에 영향을 준다. 여러 전공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우리말이 곳곳에서 흘러 들어와 온라인에 넘쳐 난다. 동일한 언어인데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의미를 뜻하는 우리말도 여럿 있다. 온라인에서 다양성은 새로운 충돌을 낳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공진화(共進化)’라는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온라인의 우리말 다양성은 바로 공진화의 모습이다.

2.3. 다변화(多邊化)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 세상의 변화도 매우 빠르다.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말의 진화도 급격하다. 온라인에서 우리말은 수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시사적인 주제가 등장하면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말이 생긴다. 새로운 시사 용어는 어느새 시대상을 대표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온라인 신조어는 하루가 멀게 새롭게 태어난다. 이모티콘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기호로서 온라인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다. 슬픈 표정은 ‘ㅠㅠ’, ‘TT’, ‘TOT’ 등으로, 기쁜 표정은 ‘^^’, ‘v^’, ‘D’ 등으로 나타낸다.

어떤 이모티콘은 기호로 입력하면 실제 표정과 유사한 이미지로 바뀌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유래한 신조어도 적지 않다. 아주 큰 이득을 보았다는 뜻의 ‘개이득’이나 특별한 물건을 입수했다는 의미의 ‘득템’이 게임에서 비롯된 말이다. 방송도 한몫 거들었다. 한 연예인이 쓰기 시작했다는 ‘깨알 같다’(작은 효과로 훨씬 큰 것을 표현한다는 의미) 또는 유명 배우가 방송에서 보여 준 모습에서 시작했다는 ‘먹방’(‘먹는 방송’의 줄인 말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 방송을 의미) 같은 말은 방송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다. 정치 관련 신조어도 유행을 탄다. 선거철이나 정치적 쟁점이 팽배할 때 언론에서 정치 관련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기도 한다. 정치 신조어는 시대적 사안에 의존하므로 곧 사라진다.

김승용 작가의 『우리말 절대지식』을 보면 우리말 속담의 오랜 변천을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의미의 속담이라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현대의 우리말 속담이 입에 착착 붙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2.4. 국제화(國際化)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국가와 민족마다 각자의 언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조금씩 그 언어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연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 연결될수록 언어에 따른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고유의 언어 장벽을 낫추기 위해 최근 구글과 네이버 등은 주요 국가의 언어를 동시에 통역하고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호흡하는 우리말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준비가 되었다. 전 세계 언어 장벽이 낫아지면 우리말의 변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우리말에 외국어와 외래어의 유입은 자연스럽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공통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국제화 시대에 언어의 섞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말 고유어와 외국어가 결합된 합성어의 등장도 자연스럽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어휘라면 정착할 것이고 자연스럽지 않으면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2.5. 대중화(大衆化)

전문가의 영역이 대중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대중들도 웬만한 전문 용어는 소화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전 분야가 이제는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대중화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정확한 전문 용어와 개념을 대중이 선호하는 쉬운 단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대중 교양서적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전문 용어의 설명과 확산도 늘고 있다. 출판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특히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전문 용어의 대중화가 활발하다.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대중에게 전문 분야를 널리 알리는 일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온라인의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웬만한 전문 용어는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대중이 이해할 정도의 용어 설명을 전문으로 하는 ‘위키백과’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도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이 전문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늘고 있다. 전문가만이 독점했던 ‘학문적 도그마(dogma)’가 풀리며 온라인은 온통 고만고만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넘쳐 나고 있다. 우려의 측면도 있지만 전문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 대중에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다. 좀 더 많은 전문가와 대중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전문 용어의 우리말 대중화는 꼭 필요하다.

3. 우리말의 미래

온라인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말이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우리말의 진화는 바람직한가? 처음에 온라인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언어의 변형은 호기심과 재미로 또는 시사적인 쟁점에 사용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 신조어 또는 시사 용어로 자리를 잡기도 한다. 말의 혁명은 사회의 혁명보다 빠르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우리말의 ‘반란’은 온라인으로 그치지 않고 생각과 실생활 깊숙이 파고든다.

요즘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사회의 변화를 어찌 막을 것인가? 넘치는 강물을 어찌 손으로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페이스북에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글은 생동감 넘치고 진솔하며 감칠맛이 난다. 그 글에는 조각난 우리말이 거의 없고 문장 완성도가 높다. 짧은 글도 있지만 제법 주제를 잘 정리한 긴 글도 많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글을 좋아한다. 매번 기대 이상의 엄청난 호응을 한다. 글에 대한 대중의 반응으로 그 사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말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 않다고 확신한다. 잘 쓰인 긴 글을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한다.

국립국어원은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우리말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우리말도 사람들과 함께 숨 쉬며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우리말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다만 진화의 방향이 자연 발생적으로 더 나은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다. 온라인에서의 연결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우리말이 핵심이기에 우리말의 진화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싶다면 우리말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연결의 언어로서 우리말의 진화와 미래가 한껏 기대된다.